

'사상 첫 동반 우승 도전' 다시 뛰는 남녀 태극전사

남·녀 축구대표팀, 내달 동아시아컵 출전

남녀 축구대표팀이 동아시아 정벌을 위해 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대표팀은 27일 오후 2시 울산 롯데호텔에 소집됐다. 선수단은 신 감독 주도 아래 미팅을 실시한 뒤 오후 5시부터 울산종합운동장에서 본격적인 몸 만들기에 돌입했다. 첫 훈련에는 전체 24명 중 20명이 참석한다.

장현수(FC도쿄), 정승현(사간 도스), 김진현(세레소 오사카)이 J리그 일정으로 빠졌고 K리그 챌린지(2부리그) 부산 아이파크 소속의 이정협도 FA컵이 끝난 뒤 합류할 예정이다.

동아시아컵은 한국, 중국, 일본, 북한 4개국 1한 번씩 맞붙어 순위를 정한다.

2년 전 중국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남자 대표팀은 통산 4번째 정상에 도전한다.

남자 대표팀은 오는 9일 중국과 첫

경기를 치른 뒤 12일 남북 대결을 갖는다.

16일에는 한일전이 예정돼있다. 이번 대회는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러시아월드컵 본선에 앞서 선수단 점검의 성격도 띠고 있다.

유럽과 선수들이 빠진 만큼 그동안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던 K리그, 일본, 중국리그 소속 선수들에게는 신 감독의 눈도장을 찍을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축구대표팀 23명은 같은 날 제주국가대표팀에 이닝센터(NFC)에 모여 호흡을 맞춘다.

최근까지 WK리그 챔피언결정전과 올스타전을 소화한 선수들은 스트레칭과 러닝으로 몸을 풀었고, 나머지 선수들은 미니 게임으로 땀을 흘렸다.

여자 대표팀은 8일 일본과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북한(11일), 중국(15일)을 차례로 상대한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대표팀 코치진(사진왼쪽)·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국가대표팀 공개 훈련 모습

모두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보다 앞서있지만 넘지 못할 산은 아니라는 평가다.

여자 대표팀은 다음달 6일 떠나는

남자 대표팀과 달리 오는 29일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일찍 현지에 입성해 집중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윤 감독의 요청으로 이뤄

진 것이다.

한편 남자 대표팀은 앞선 6차례 동아시아컵에서 세 차례(2003년·2008년·2015년)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여자 대표팀은 2005년 1회 대회 우승이 유일하다.

아직 남녀 대표팀의 동반 우승은 없다. /뉴시스

박병호, 친정팀 넥센 전격 복귀

2년 미국 생활 청산... 홈런왕 최정과 불방망이 경쟁 펼친다



박병호(31)가 미국 생활을 접고 KBO리그로 돌아오면서 내년 시즌 홈런왕 경쟁에 벌써부터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라이언킹' 이승엽(전 삼성) 이후 KBO리그 최고의 홈런타자로 군림한 박병호(31)가 미국 생활을 접고 KBO리그로 돌아오면서 내년 시즌 홈런왕 경쟁에 벌써부터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박병호는 메이저리그 통산 82경기에서

출전해 타율 0.191(215타수 41안타) 12홈런 28득점 24타점의 성적을 기록했다.

미야네리그에서는 통산 142경기에서 타율 0.247(535타수 132안타) 24홈런 66득점 79타점의 성적을 거뒀다.

한국에서의 성적과 비교하면 형편없

지만 메이저리그와 미야네리그 통틀어 36개의 홈런을 기록한 만큼 거포 이미지는 잃지 않았다.

박병호는 2012년 첫 홈런왕에 오른 뒤 미국 진출 전까지 4년 연속 홈런왕을 차지했다.

2014년 52홈런을 때려내며 2003년 이승엽(56홈런) 이후 12년 만에 50홈런 고지를 밟았다.

이듬해에는 53홈런으로 두 시즌 연속 50개 이상 타구를 담장 밖으로 날려버렸다.

박병호가 미국에 있는 사이 최근 두 시즌 동안 최정(31·SK)이 최고 거포로서 입지를 다졌다.

최정은 지난해 40홈런으로 에릭 테임즈(전 NC)와 함께 홈런 공동 1위에 올랐고 올해는 46홈런으로 타이틀을 지켰다.

박병호는 컴백과 함께 내년 시즌 최정으로부터 홈런왕 타이틀을 빼앗을 유력한 후보가 됐다.

박병호와 최정이 벌일 홈런왕 경쟁은 내년 시즌 KBO리그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박병호가 KBO리그 최고 거포로서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시스

SK, 메이저리거 산체스 110만달러 영입

SK 와이번스가 최고 158km의 강속구를 뿌리는 우완 '파이어볼러' 앙헬 산체스(28·도미니카공화국) 영입에 성공했다.

SK는 28일 산체스와 연봉 85만 달러, 옵션 25만 달러 등 총액 110만 달러(약 12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체스는 도미니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2010년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 계약, 프로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마야메이 말린스를 거쳐 미야네리그 생활을 이어간 뒤 지난 8월 24일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으로 메이저리그 데뷔의 꿈을 이뤘다.

올 시즌 종료 후 피츠버그 40인 로스터에 포함됐으나 SK가 메이저리그

'물 5드래프트'를 위한 로스터 제출 마감 직전 바이아웃을 통해 영입했다.

산체스는 미야네리그에서 통산 160경기에 출장해 38승 47패 평균자책점 4.1을 기록했다.

평균 구속 148~155km의 빠른 공을 던지는 파이어볼러 유형의 투수로 최고 158km를 찍기도 했다고 SK는 전했다.

적구 뿐 아니라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변화구까지 모두 수준급으로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플A 통산 6754이닝 550 탈삼진을 기록한 만큼 삼진 능력이 우수하다. 그러면서도 볼넷은 228개에 불과해 '삼진/볼넷' 비율이 3.83에 달한다. 뜬공보다는 땅볼 타구가 많아 SK의



홈구장인 행복드림구장에도 좋은 공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SK 관계자는 "꽤 오랫동안 지켜본 선수다. 2015년 선발투수로서 아주 뛰어난 기량을 보여 지난해 영입하려 했으나 부상으로 인해 KBO리그에 다소 늦게 오게 됐다"며 "부상 회복 이후 기량이 더욱 좋아졌고 아직 충분히 젊은 선수인 만큼 오랫동안 선발투수로 활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박성현, 3주연속 세계랭킹 2위... 평산산 1위 고수

박성현(24·KEB하나은행)이 3주 연속 여자 골프 세계랭킹 2위에 올랐다. 28일 여자 골프 세계랭킹에 따르면, 박성현은 평균 랭킹포인트 8.27점으로 중국의 평산산(28·8.32점)에 이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사상 처음으로 루키 시즌 랭킹 1위에 등극한 박성현은 1주 만에 2위로 밀려난 뒤 3주째 제자리를 지켰다.

지난 2년 간의 성적 중 최근 성적을 우선하는 랭킹포인트 집계 방식에 따라 시즌 막판 2등을 거둔 평산산이 1위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

포인트 격차도 박성현이 2위로 밀려난 첫 주 0.02점 차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0.05점 차로 조금 더 벌어졌다.

LPGA 투어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모두 시즌이 종료됐기

때문에 상위 랭킹에 변동은 거의 없다.

유소연(27·메디힐) 3위, 전인자(28) 6위, 김인경(29·한화이) 8위를 지켰다. 김세영(24·미래에셋) 11위, 박인비(29·KB금융그룹) 12위, 안희영(28·PNS) 14위, 최혜진(18·롯데) 15위, 이미림(27·NH투자증권) 17위, 고진영(22·하이트진로) 19위 등 20위 안에 한국 선수 10명이 자리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